

맥빠진 밸류업...상장사 85% 주가하락

〈3차 상법개정안 통과 후〉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마련했던 상법개정안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3차 상법개정안 통과 이후 코스피 상장사가 가운데 85%, 코스닥 상장사의 86%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

관련기사 A3면

증권 업계에서는 국내 증시의 무게 중심이 반도체 투톱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쏠리면서 주주환원을 늘리려는 '밸류업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쏟아진 현상을 완화하고 반도체 분야 외의 기업까지 재평가를 받기 위해선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의 실효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에

2월 이후 코스피·코스닥 10곳 중 9곳 '밸류 다운'

증시 반도체 솔림에... 지배구조·주주환원 뒷전

서 800개 종목(전체 84.9%)의 주가는 상법개정안 통과일인 2월 25일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에선 1542개(86%) 종목이 하락했다. 지수 뿐만 아니라 코스피는 같은 기간 3.3% 상승했지만 개별 종목을 따지면 운기가 전혀 퍼지지 못한 셈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3차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제도의 개편과 소각 의무화였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신설했던 1차 개정안, 집중투표제를 강화한 2차 개정안과 맞물려 주주

가치를 대폭 높이는 '3중 세트'가 완성됐다는 자체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밸류업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데다 초과이익 분배 이슈까지 제기되면서 주주환원에 대한 조짐이 흐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는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나 반도체 솔림 현상 등에 밀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은 후순위가 된 느낌"이라고 짚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여전히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날 코스피는 SK하이닉스의 10.37%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전일 대비 4.58% 내린 6296.38에 마감했다. 전날 SK하이닉스가 자회사 솔라다임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는 소식에도 이를 부인하는 공시를 내지 않자 '중복상장' 논란이 다시 불거졌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원을 순매도했다.

SK하이닉스의 소극적 주주환원 태도는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지난달 29일에도 논란이 됐다. 당시 콘퍼런스콜에서 주주환원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던 탓이다.

김제림 기자

실리콘밸리 취업 뚫었다 실력과 직업계고의 반란

"마이스터고에 가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과 선생님 모두 반대했어요. 지금은 중학생인 동생도 같은 학교에 보내자고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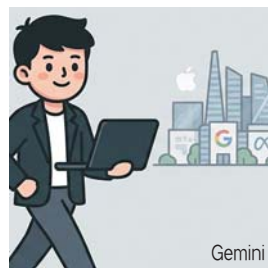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대구소마고)를 졸업한 김혜정 씨는 스무 살의 나이에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인 A&K시스템스에 취업했다. 동기인 권지용 씨는 넷플릭스 자막·통번역 기술 기업인 XL8에서 개발자로 일한다.

한때 인문계고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차선택으로 여겨졌던 직업계고가 국내의 취업을 위한 대안 경로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대구소마고는 2023년 미국 취업자를 처음 배출한 뒤 2024년 4명, 지난해에도 5명을 실리콘밸리 기업에 취업시켰다. 전체 취업률은 98.5%로 전국 5개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가운데 가장 높다. 성과의 비결은 학생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업 채용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다. 학생들은 재학 중만든 결과물을 박람회와 기업 현장에서 선보이며 실무 역량을 검증받는다.

관련기사 A25면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전국 직업계고 신입생 총원율은 2024년 93.3%에서 지난해 93.9%로 높아졌고, 올해는 94%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7월 열린 서울반도체고와 충북반도체고의 입학설명회에는 수백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몰렸다. 대구 이윤익 기자

일자리 대전환 JX
직업계고가 뜬다



시뮬레이션 직무
현장 인재가 대세

프로젝트 수업으로
실무형 인력 키워
입학설명회 북적
하위권고 인식 개

대출규제 풍선효과 '예담대' 7조원 육박

예금담보대출 석달새 8% 급증

서울에 아파트를 사려는 A씨는 가계대출 규제로 자금이 빠듯하자 예금 5000만원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 A씨는 "예금담보대출은 대출 규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은행원 설명에 활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의 풍선효과가 '규제 무풍지대'인 예금담보대출까지 확산하는 배경이다.

6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청약통장을 포함한 예담대는 6조8209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초까지 6조원대 초반 수준이던 예담대 잔액은 5월 이후 증가 속도가 빨라져 8% 이상 급증했다.

예담대란 청약 또는 일반 정기예금

으로 은행에 맡긴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예금 총액의 최대 95% 수준까지 대출을 해주고 금리도 주담대보다 낮은 편이다.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받는 몇 안되는 대출 상품이다.

급전이 필요할 경우 예금을 해지하고 그 돈을 받아 쓰는 것이 더 편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금은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있는 데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기도 한다. 반면 예담대 이자율은 예금 이자율 대비 1%포인트 높은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A12면에 계속

박인혜 기자



심상철은 부동산 민심...머리 맞던 與 서울지역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주최로 6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에서 김영배 의원과 한정에 정책위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 의원, 한 정책위의장, 남인순 의원, 진성준 의원. 이날 간담회에 모인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에 관해서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여론 악화되자... 정부 "비거주 1주택 폭넓게 인정"

실거주 유예적용 확대 시사
與 "1가구 1주택 규제 신중히"

정부가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보호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비거주'를 폭넓게 해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임대 중인 주택의 매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에 관한 개선 방안도 내놓을 전

망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이번 세제 개편의 목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착과 과세 형평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부동산세제를 마련하는 데 있다"며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 거주로 인정해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

슈와 사연이 있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강조했다.

매물 잠금을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유예 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추가적으로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놓고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보완책을 논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비거주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오기형 의원은 "실거주 간주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규아·박나은 기자

이젠 '반도체 웨이퍼'까지 품귀 A4면

kpc AI Pacemaker
한국생산성본부

AI 컨설팅 100회 · AI 역량교육 2만5천명 · AI 자격시험 1만6천명 달성

대한민국 AI, 함께 이끄는 파트너를 찾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성 혁신을 이끌어 온 KPC가
대한민국 AI 전환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종합 컨설팅·교육·자격 기관입니다.

AI 역량진단 · AI 컨설팅 · AI 역량교육 · AI 자격인증

AI를 통한 새로운 생산성 향상

AI 공개교육 강사

AI 전문 강사 | 직무융합 AI 강사

지원하기 ▶



AX 협력 파트너

AI 역량진단·전략·거버넌스·전환 컨설팅 | AI 팩토리 실행

지원하기 ▶



* 법인(합의 파트너사)·개인(전문 컨설턴트) 지원 가능